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 27조 3,800억원으로 성장

여가, 식품, 의약품, 요양서비스 시장 점유율 높아 ... 고령자 수요 반영을 통한 시장확대 필요

글_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민경민 연구원

서론

국내 인구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어, 2008년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의 10%를 넘어선 이후, 2026년에는 20%에 접어들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는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련법 제정, 고령친화산업 지원 정책 등을 통해 고령친화산업을 성장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사회 또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선진국가의 노인관련 정부지원정책은 복지중심의 관련법 제정이 그 기초가 되고, 산업적 측면의 전략을 수립, 이어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고령친화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단계를 밟고 있으나, 아직 산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정부의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산업은 아직 결음마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기고에서는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현황을 살펴보고, 수요자측면에서 고령자들이 요구하는 제품 및 서비스 니즈 파악을 통해 고령사회에 대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고령친화산업 시장 규모

고령친화산업 범위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용품·의료기기, 주택(시설), 노인요양서비스, 금융·자산관리서비스, 정보기기 및 서비스, 여가·관광·문화 및 건강지원서비스, 농업용품 및 영농지원서비스, 의약품 및 화장품, 교통수단·교통시설 및 관련 서비스,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서비스 등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산업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 중에서 데이터 생산 여부, 최근 정책 수요 등을 반영한 8대 산업을 선정하여 고령



친화산업 시장규모를 추계하였다. 8대산업에는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용품, 요양서비스, 주거산업 및 여가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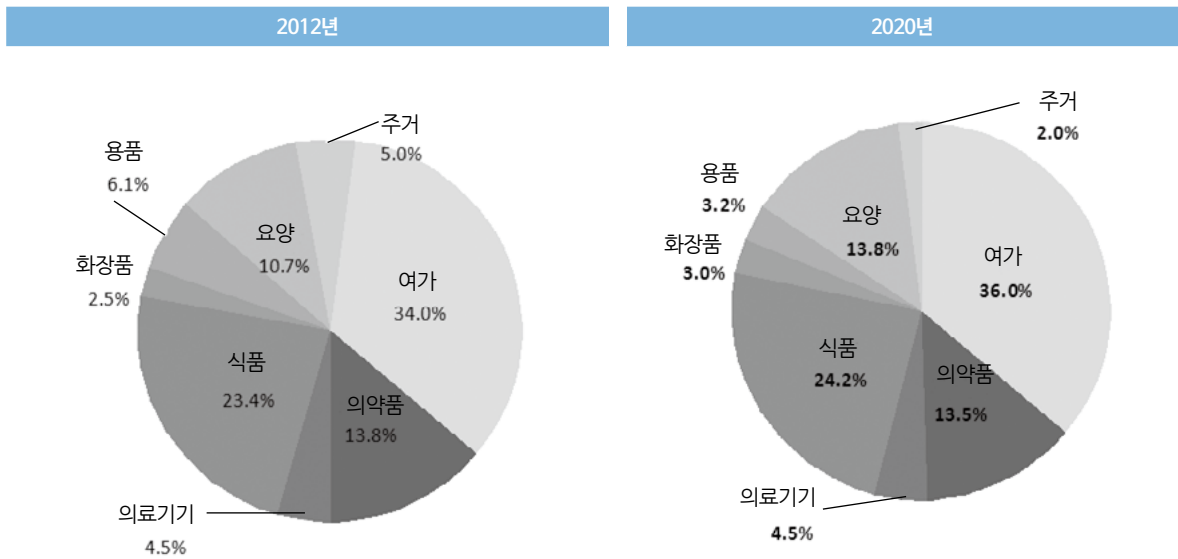
전체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는 2012년 기준 27조 3,809억원이며, 2020년까지 연평균 13.0%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며 72조 8,305억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체 고령친화산업 중 여가산업(34.0%)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식품산업(23.4%)이 차지하고 있다(표 1).

2020년 시장규모 중 2012년 대비 가장 큰 비중 변화를 보이는 산업은 요양산업으로, 2012년 10.7%에서 2020년 13.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1).

〈표 1〉 고령친화 세부산업별 시장규모 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2012년		2015년		2020년		CAGR (12~20)
	시장규모	비중	시장규모	비중	시장규모	비중	
의약품	37,791	13.8	54,010	13.8	97,937	13.4	12.6
의료기기	12,438	4.5	17,827	4.5	32,479	4.5	12.8
식품	64,016	23.4	93,609	23.8	186,343	24.2	13.5
화장품	6,945	2.5	10,645	2.7	21,690	3.0	15.3
용품	16,689	6.1	18,770	4.8	22,907	3.1	4.0
요양	29,349	10.7	46,533	11.9	100,316	13.8	16.6
주거	13,546	5.0	14,209	3.6	14,301	2.0	0.7
여가	93,034	34.0	137,237	34.9	262,331	36.0	13.8
합계	273,809	100.0	392,839	100.0	728,305	100.0	13.0



[그림 1] 전체 고령친화산업별 시장 비중 변화

세부산업별로 국제경쟁력, 시장매력도, 각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략품목을 선정하였으며, 2012년 기준 고령친화 전략품목 시장규모는 9조 4,799억원으로 전체 고령친화산업의 34.6%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고령친화산업별 전략품목 시장 규모

(단위 :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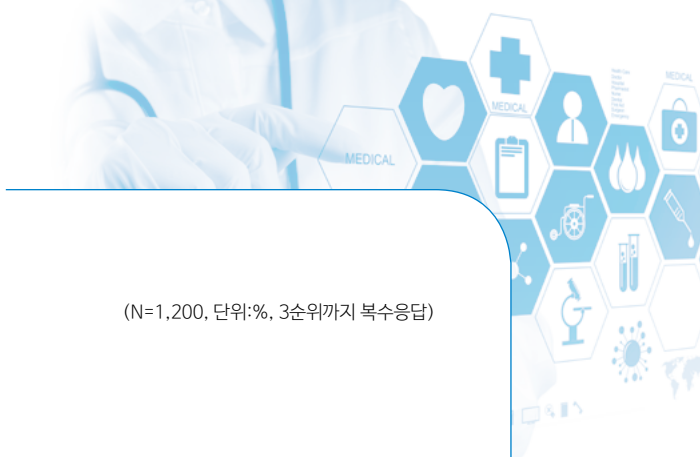
산업	전략품목	전략품목 시장규모(A)		고령친화산업(B)	전략품목 비중 (A/B×100)
의약품	고혈압용제	5,309.51	12,754	37,791	33.8
	당뇨병용제	1,013.84			
	중양용약	852.06			
	해열·진통·소염제	4,075.11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1,503.29			
의료기기	치과	3,753.05	6,140	12,438	49.4
	재활	397.06			
	진단	895.77			
	치료	1,093.9			
식품	건강기능식품	13,507.08	21,525	64,016	33.6
	특수용도식품	905.19			
	전통발효식품	6,385.80			
	두부류 또는 목류	727.07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2,036.32	2,037	6,945	29.3
	체취방지용제품류	0.77			
용품	개인건강·의료용품	10,708.20	10,915	16,689	65.4
	여가용품	207.17			
요양	방문요양	11,202.77	11,202	29,349	38.2
주거	리모델링	257.40	257	13,546	1.9
	게임	229.74			
여가	방송	20,823.49	29,968	93,034	32.2
	정보제공 웹 사이트	3,310.09			
	시설운영업	1,890.53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672.08			
	관광편의시설업	3,042.05			
	합계	94,799			

고령자, 전용 식품과 건강지원서비스에 관심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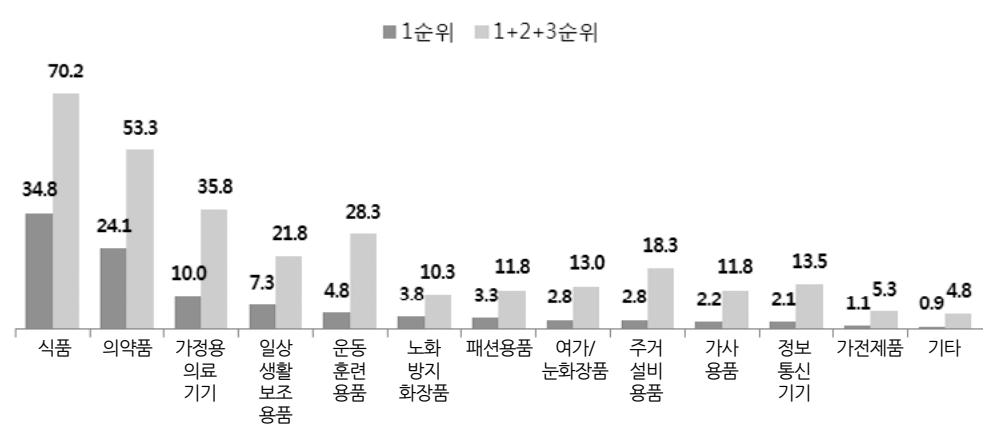
이미 2006년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노인들이 소비를 주도하고 있다. 예를 들면, 노인들의 가계소비총액이 67조엔으로 전체의 39.7%를 차지하고 있다(미즈호은행, 2012).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노인들이 소비를 주도하고 있지는 않으나, 노인증가와 함께 액티브 시니어로 불리우는 베이비부머 세대¹⁾의 은퇴 등으로 인해 시장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들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관련 공급자들은 이들이 요구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확실히 노인의 소비 성향은 다른 연령층과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60세 이상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하게 식료품·비주류 음료에 대한 가계지출 비중이 높으며, 보건비용은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통계청, 가계동향통계). 노인들의 보건비 지출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를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의료문화 정착을 유도하여 빠르게 증가하는 노인 보건의료비 지출에 적절히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산업연구원, 2013).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국내 만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고령친화산업 중, 고령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제품은 노인용 식품과 의약품, 고령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고령자의 건강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와 요양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3)

1) 베이비부머 : 1955년~1963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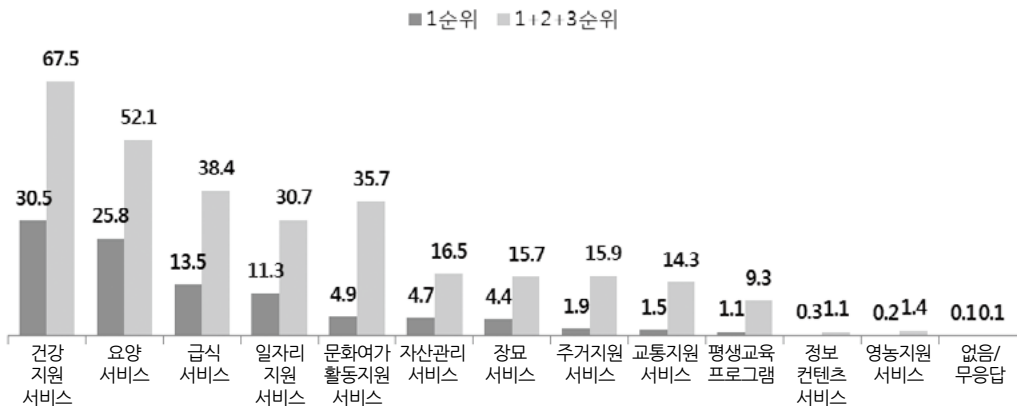
(N=1,200, 단위:%, 3순위까지 복수응답)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년 고령친화산업 소비자 수요조사

[그림 2] 고령자를 위해 필요한 제품

(N=1,200, 단위:%, 3순위까지 복수응답)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년 고령친화산업 소비자 수요조사

[그림 3] 고령자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

세부 산업별로 살펴보면, 고령자들이 원하는 식품으로는 영양성분이 골고루 갖춰진 식품, 소화가 잘되는 식품, 씹기 편하고 넘기기 좋은 부드러운 식품 등이었다. 특히,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들은 소화가 잘되는 식품, 씹기 편하고 넘기기 좋은 부드러운 식품, 영양성분이 골고루 갖춰진 식품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은 의약품 복용 시, 시간에 맞춰 약을 챙겨먹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복용주기가 긴 의약품, 흡수가 빨라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의약품, 위나 장에 부담이 적은 의약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강관리지원서비스는 고령자의 약 65%가 요구하고 있으며, 이 중 정기검진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서비스는 시설보다는 집에서 받고 싶은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인들이 고령친화제품 선택 시 제품에 대한 성능효과, 가격, 국가나 단체에서 인증하는 마크 및 표시 등을 고

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령친화서비스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가격, 국가나 단체에서 인증하는 마크 및 표시, 좋은 시설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들은 가격에 민감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면 고령친화 문화·여가 서비스에 대한 현황과 수요에서 잘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평상 시 주로 하는 여가활동은 비용이 다소 저렴한 휴식활동(TV시청, 음악감상, 산책 등), 취미·오락활동, 스포츠활동이 높은 반면, 향후 하고 싶은 여가활동으로는 비용이 소요되는 관광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결론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는 약 27조 3,800억원으로, 여가(34.0%), 식품(23.8%), 의약품(13.8%), 요양서비스(10.7%)에 대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고령자들이 필요로 하는 산업 역시 식품, 의약품, 요양서비스 등인 것으로 조사되어, 해당산업은 고령친화산업의 시장 및 수요 측면 모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령친화시장규모는 향후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고령화추세와 함께 ‘액티브 시니어’로 불리는 베이비부머 세대 역시 크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기존의 수동적인 실버소비자와 달리, 시간적, 경제적 여유와 함께 적극적인 소비의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영위하는 특징을 보여 향후 고령친화산업 발전의 견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4년 기준 베이비부머 세대는 전체 인구의 14.1%(711만명)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인구집단(베이비부머가 포함된 준고령자²⁾까지 포함하면 전체 인구의 20.8%를 차지)으로, 2010년을 기점으로 정년퇴직 연령에 진입(만 55세 기점)하기 시작해, 향후 10년간 매년 퇴직자수가 14만~15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014 고령자통계, 통계청).

이렇듯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고령친화산업 시장 확대의 핵심은 일본과 같이 고령자를 소비 주체자로 이끌어 내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아직 초기 단계에 국내의 고령친화산업은 주로 공급자측면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상대적으로 수요와 관련된 지원이나 정책은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따라서, 향후에는 수요자 측면에서 고령자의 의식변화, 소비 트렌드, 니즈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가 꾸준히 수행되어 이것이 산업 및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 가계동향통계, 통계청
2.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산업분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12
3. 고령친화산업진흥법 [2013.03.23, 법률 제11690호]
4. 인구구조 변화가 서비스 수요에 미치는 영향, 산업연구원, 2013
5. 특집 일본산업 중기전략 - 일본산업부흥을 위한 유망분야 발굴, 미즈호은행, 2012
6. 2014 고령자통계, 통계청, 2014.09
7. 2014년 고령친화산업 소비자 수요조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11
8.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2) 준고령자 : 50~64세 인구

세계와 함께하는 글로벌 보건산업 네트워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내 보건산업의 성장과 발전은 물론, 전 세계가 주목하는 보건혁신을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무한활동을 기대해 주십시오.



보건산업강국 대한민국,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함께 합니다

보건산업 글로벌 진출 Hub

보건산업의 활발한 해외진출을 위하여 현장 중심의 지원과 다양한 국제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보건산업 강국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기술(HT) 혁신 Leader

국가 보건의료 R&D 사업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기획-평가-관리함으로써 첨단 보건의료기술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신뢰와 함께하는 성공 Partner

우수기술 발굴, 투자유치 지원, 외국인투자 유치, 산업체 기술 경영 지원, 제품(기술) 인증, 전문인력양성 등을 통해 보건산업체의 든든하고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보건산업 육성 Think Tank

정부의 효율적인 보건산업육성 정책 수립 및 수행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최신의 산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